

농업박람회 준비 순조

개막 120여 일 앞... 전시관·주차장 등 공정 95%

국내외 305개 기관·기업 참가... 목표 20% 초과 달성

올 가을 나누시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리는 2012 국제농업박람회(10월5일~29일까지·이하 농업박람회)의 개막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박람회조직위는 5일 전남도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보고회를 갖고 준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농업박람회 개막 120여 일을 앞두고 마련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장으로 펼쳐졌다.

또 전시관 건립, 주차장·진입광장·환경조성 등 기반조성 시설공정이 95%가 진행되고 있고, 6월 말까지 완공 후 각종 전시 콘텐츠 제작 및 설

치를 8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9월 중에는 전반적인 시운전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다.

농업박람회 참가는 지금까지 국내외 305개(해외 74·국내 231) 기관 및 기업이 참가 신청을 해 목표 대비 20% 초과 달성을 했으며 주관방송사와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 박람회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등 전 세계 15개국 68개 업체와 국내 185개 기업 등 253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이번 농업박람회는 지난 2002년부터 10회에 걸친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정

부가 승인한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녹색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를 주제로 오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전남 나누시 산포면에 위치한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펼쳐진다.

또 예코농업디자인전, 자원 재활용을 통해 작품으로 승화된 업사이클링전, 폐농기계 등 폐농자재를 이용한 정크아트전, 국내외 우수 포장디자인 상품전, 천연염색 50인 초대전, 국제압화전, 전통술 향기전 등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특별 기획 전시가 결속된다.

박만수 조직위 부위원장(전남농업기술원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더욱 피해해진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명품 박람회'로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요광기자 kroh@kwangju.co.kr



햇마늘 수확 한창

마늘 주산지인 강진군 작천면 들녘에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마늘을 수확하고 있다. 마늘수확 작업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전국최대 강진 화물차 공영차고지 20일 완공

대형 화물차 800대 동시 주차 가능

전국 최대 규모의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오는 20일 완공된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공영 차고지 준공을 보름여 앞두고 지역 등록 대형 화물차가 200여대에서 1000여대로 5배가량 늘어나 재정수입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총사업비 110억을 들여 총면적 14만7000여㎡에 대형 화물차 80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지난 2009년 착공, 3년에 공사 끝에 완공했다.

물류시설은 크게 자동차 면허에 따른 의무시설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운전자들이 쉬어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집화 및 배송을 취급하는 화물터미널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화물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데, 많은 사업체들이 차고지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돼 사업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게 됐다. 군은 화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임대하기 위해 강진으로 차량을 등록함에 따라 시설 사용료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 등 연간 150여만원의 재정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중앙정부로부터 자동차세 주변부인 유가 보조금 170여만원을 배분받아 어려운 군 재정살림에 숨통을 트이게 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 공영 차고지는 관광 컨테이너 부두와 목포·완도 항만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서 목포~광양 고속도로 성전 나들목에 설치된 이점을 살려 물류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장흥군 인암마을에

'산촌문화당' 개관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장흥군 유치면 인암마을에 '산촌문화당'이 지난 4일 문을 열었다.

인암마을은 전통 기와양식의 '산촌문화당' (132.2㎡)을 건립하고 최근 유치면의 지원으로 석축 등 주변정비를 완료했다.

장흥과 영암의 경계인 국사봉(614m) 기슭에 자리잡은 인암마을은 16세대 34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산골마을이다.

인암마을 관계자는 "슬로 시티의 자부심을 갖고 관광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배 신제품 '화산' 유기농 재배에 최고

흑성병 등 병해충에 강해

화화농약과 화화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배를 유기농 재배하려면 '화산' 품종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는 6년간 유기농 배농장에서 신제품 7종을 대상으로 시험 재배한 결과 '화산' 품종이 다른 품종보다 흑

성병(黑星病) 등 병해충에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결과 대미수출로 각광을 받고 있는 '화산' 품종은 착과성이 우수한데다 흑성병 발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유기농 배농가들은 '신고' 품종을 재배하면서 병해충의 발생과 착과 불량으로 많은 애를 먹고 있다.

원예연구소 나양기 박사는 "국내육성 신제품인 '화산' 품종은 과실품질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당도가 기존의 '신고' 품종보다는 월등히 높고 병에 강하다"며 "유기농 재배에 적합한 것이 생산비를 줄이면서 고품질의 유기농 배과실을 생산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북

'달하 노피곰 도다샤'

정읍사 오솔길 도보꾼들에 인기

백제시대 행상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상이 된 여인의 사랑을 담은 백제가요 '정읍사'를 테마로 한 도보길이 걷기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5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거머쥔 스토리가 있는 웰빙 숲길로 조성한 '정읍사 오솔길'에 대한 입소문이 이어지면서 도보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2012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도보여행 동호인과 관광객, 지역명사들이 대거 참여한 걷기 문화 체험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정읍사 오솔길'(총연장 17km)은 정읍사 공원에서 시작해 월령마을~내장호 수변~정읍천변 자전거 도로를 거쳐 공원으로 돌아온다.

1코스(6.4km)는 정읍사 공원을 출발해 월령 마을을 거쳐 내장산 문화광장까지 구간으로 ▲만남의 길 ▲한

희의 길 ▲고뇌의 길 ▲언약의 길 ▲실천의 길 ▲탄탄대로의 길 ▲지킴이의 길로 스토리화돼 있다.

2코스(4.5km)는 내장 호수길로 내장호의 아름다움과 함께 단풍나무·소나무·아카시아 숲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걷기에 제격이다.

3코스(6.2km)는 문화광장~정읍사 공원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길 (Tour Biking)이다.

시는 이 구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대여소는 정읍사 공원과 내장산 문화광장 모두 2곳. 시는 수탁자 선정시까지 운영할 방침이고, 대여시간은 오전 9~오후 8시까지로, 1일 1회 2시간 이내로 대여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군산시, 청년 일자리 사업 22억 투입

기술인력 교육 등 알차게

군산시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는 기업의 신규 채용자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유도로 청년층에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취업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취업 2000사업'을 비롯해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30 취업탐방버스 운영 ▲출소(예정)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산·학·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새만금·기업고용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시는 청년 미취업자들이 중소기업 근무체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체험 종료 후 정규직

으로 전환돼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총 22억8000만원을 투입해 '청년취업 2000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정규직으로 총 230명, 현재 220명에게 근무체제를 지원해 95.6%의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또 시와 전북 인력개발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선·기계분야 융합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연간 30명의 특수용접 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현재 2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시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함께 시행하는 '2030 취업탐방 버스'는 제대예정 사병과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최근 구직자 30여 명이 관내 기업을 현장 탐방하고 현장에서 면접까지 실시했으며,

올해 총 5회(150명)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경제의 공생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학·관 업무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취업정보 센터와 새만금·기업고용 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직상담 198건 ▲구인상담 58건 ▲기관간 미팅 30건 ▲일자리 알선 551건 등 성과를 거뒀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업의 만성적인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진로와 취업을 걱정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인력 프로그램 개발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단신

새만금경제청, 지적 기준점 일제조사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에 걸쳐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759점(지적 삼각점 1점·지적삼각 보조점 27점·지적도 근점 731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기준점 유무를 확인하고, 측량결과 등을 비교분석

해 위치변동 등 잘못 설치된 기준점은 폐기, 망실분은 재설치, 영구기준이 불필요한 기준점은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새만금경제청 관계자는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익산 북부시장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시민과 시장상인이 함께 하는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가 7일 오후 2시부터 익산 북부시장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전북 상인연합회 주최·전북도 와 익산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가요제는 점포홍보와 시장탐방, 초청가수의 축하공연, 시민 노래자랑 순으로 이뤄진다.

대중가요 '행방'로 유명한 강진을 비롯해 유지나, 강민의 축하공연과 함께 푸짐한 행운권 추첨이 진행된다.

북부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불거리와 답이 풍성한 전통시장을 찾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볼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가족분노 우수자원화' 국비 1억원 지원

정읍시 대호 그린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성민)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액비 유통업체 평가에서 '가족분노 우수자원화 조직체'로 평가받아 인센티브로 국비 1억원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전국 188개소 액비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가동율, 퇴

액비 생산·유통, 액비 품질 등 전반에 걸쳐 운영실태를 평가했다. 정읍시는 보조 지원사업을 평등하게 배정하던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액비 유통업체 평가를 통해 A등급·B등급·C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공무원들 일손돕기 창구 운영

순창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7월 15일까지 군 농정과와 읍·면사무소, 회원농협 등에 일손돕기 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매실과 복분자, 오디 수확 등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사회단체를 앞세워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로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도시와 농촌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이 순창지역에서 농촌 수확체험을 희망할 경우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버스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 '춘향 테마파크 전통문화 축제' 연중 운영

고전소설 '춘향전'을 관광 상품화한 전통문화 페스티벌이 남원 춘향테마파크에서 연중 열린다.

남원시는 '소설 춘향전'의 주요 내용을 체험 행사로 묶어낸 '춘향 테마파크 전통문화 페스티벌'을 연중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통문화 페스티벌은 고전문화 춘향전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판소리가 중심이다.

마당극 '춘향전' 공연을 비롯해 판소리배우기, 장구로 배우는 민요체험, 춘향과 이도령 그네뛰기 체험 등 다양한 전통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춘향테마파크 내에 있는 옥사정에

서는 목갈과 목수갑을 써보고 곤장을 맞아보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또 조선시대 전통의복을 입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의복 입어보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춘향테마파크를 찾은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떡메치기와 월매 떡갈리 체험, 전국 제기차기 대회, 투호대회 등도 열린다.

남원시 관계자는 "전통문화 페스티벌은 춘향 테마파크 시설을 활용해 '춘향전'의 주요 내용을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축제"라며 "행사를 활성화해 관광 소득으로 연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남원 춘향골 복숭아 드세요"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안홍섭씨 부부가 0.8ha 시설하우스에서 햇복숭아를 수확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